

주님 세례 축일 복음 나누기

“그분께서는 하느님의 영이 당신 위로 내려오시는 것을 보셨다.”(3,16)

1. 성호경
 2. 시작성가(생활성가를 추천합니다)
 3. 자기소개와 한 달의 삶 돌아보기(각자 어떻게 지냈는지 발표합니다)
 4. 준비기도<각자 자유롭게>
 5. 독서 (성경읽기 I) - 마태 3,13-17
- + 마태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 3 13 그때에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려고
 갈릴래아에서 요르단으로 그를 찾아가셨다.
- 14 그러나 요한은 “제가 선생님께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선생님께서 저에게 오시다니요?” 하면서 그분을 말렸다.
- 15 예수님께서 “지금은 이대로 하십시오.
 우리는 이렇게 해서 마땅히 모든 의로움을 이루어야 합니다.”
 하고 대답하셨다. 그제야 요한이 예수님의 뜻을 받아들였다.
- 16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셨다.
 그때 그분께 하늘이 열렸다.
 그분께서는 하느님의 영이 비둘기처럼 당신 위로 내려오시는 것을 보셨다.
- 17 그리고 하늘에서 이렇게 말하는 소리가 들려왔다.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 내 마음에 드는 아들이다.”

※ 세밀한 독서 나눔

- 한 사람이 성경을 큰 소리로 천천히 읽습니다.(다 같이 큰소리로 읽어도 좋습니다)
- 모두 들은 후, 각자가 성경 말씀을 한 절, 한 절 세밀히 읽습니다.
- 처음부터 단어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6하 원칙(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에 따라 읽습니다. 의미 있는 단어, 반복되는 어휘나 문장을 주의 깊게 읽으며, 성경의 다른 곳에 그 말이 나오는 부분이 있는지 기억하도록 합니다.(약 5분 정도)
- 한 사람씩 특별히 와 닿는 단어나 구절을 아주 천천히 세 번씩 반복하여 외칩니다.
- 단어나 구절을 선택하게 된 동기를 돌아가며 발표합니다.
- 세밀한 독서가 끝나면 성경 해설 부분을 서로 돌아가면서 천천히 읽습니다.

< 성경해설 >

주님 세례 축일입니다. 우리의 세례와 주님의 세례를 비교해 보는 것도 좋을 듯합니다. 복음의 전반부는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세례자 요한의 이야기이고 후반부는 예수님의 세례 장면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등장인물과 장소에 대해 살펴보면, 세례자 요한과 예수님, 하느님의 영(비둘기), 하늘의 소리가 등장하고 있고, 장소는 갈릴래아와 요르단 강입니다.

요한의 세례는 당시의 다른 세례와 비슷했지만 근본적으로 달랐던 점은 공적으로 자신의 죄를 고백해야 했었고, 내적으로는 회개와 쇄신의 삶을 약속해야 했다는 점입니다. 요르단 강변 사막지대에서 베풀었던 세례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오랫동안 광야에서 유랑했던 그 시절의 기억을 연상시켰으며, 요르단 강의 의미는 여호수아의 인도 아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팔레스티나 땅으로 들어가는데 있어서 마지막 장애물로 나타났던 강으로 모세의 영도아래 홍해바다를

형단했던 것과 같은 경이로운 그 일을 상기시켜주는 의미가 있습니다.(선포와 봉사 중에서)
죄 없으신 분이 인간이 베푸는 세례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예수님께서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금은 이대로 하십시오.” 구원사적인 측면에서 ‘지금’이란 요한이 예수님께 세례를 베풀어야 하는 때이며, 예수님께서서는 세례를 받으심으로써 종의 역할을 감당하고 우리와 똑같이 하느님 백성으로 낮추어지셨음을 보여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15절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1인칭 단수 명사를 사용하지 않고 ‘우리’라는 복수 형태를 취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과 요한이 함께 이루어야 하는 일이며, 더 넓은 의미로 해석을 해보자면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도 분명 연대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세례를 받음으로써 하느님의 일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의로움”이란 하느님의 뜻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 시간 이후부터 지금까지 의로움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16절에서는 참 겸손이 어떤 것인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높아지려고 애쓰는 것이 아닙니다. 낮은 곳을 향해 내려가는 것입니다. 물이 계속 낮은 곳을 찾아 흘러 내려가듯 말입니다. 그것이 자연의 이치이며 순리입니다. 예수님께서서는 당신의 십자가 죽음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결국 그렇게 되기 위해서 세례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지요.

17절에 사용된 “사랑하는”이란 형용사는 ‘유일하다.’란 의미 또한 가지고 있습니다. 완전한 순명이 있을 때 하느님의 유일한 사랑과 축복이 펼쳐집니다. 그 사랑과 축복은 인간의 지혜로는 가히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깨달아야 합니다. 하느님께서서는 우리의 소중한 것을 빼앗아 가시는 분이 아니라 되돌려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그것도 몇 갑절로 되갚아주신다는 것을.

요르단 강에서의 예수님의 세례 장면은 ‘진짜 사건’이란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느님께서서는 가장 보잘것없이 나약한 아기의 모습으로 이 세상에 오셨으며, 그 아기는 이름 없는 고장에서 평범한 목수의 아들로 시작했고, 공생활의 화려한 시작을 또한 인간의 상상을 초월한, 인간에 의한 물의 세례로 시작을 하셨습니다.

다시 한 번 ‘왜일까요?’란 질문을 던져 봅니다. 예수님의 세례는 하느님의 사랑을 보여 주시고자 함이었으며 우리 인간의 구원을 위해서였습니다. 그리고 그 엄청난 세례에 우리가 지금 참여하고 있다는 것이며, 우리는 예수님과 세례자 요한처럼 그분 역사의 진정한 동반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임마누엘’(하느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느님께서 계시기 때문입니다.

※ 묵상나누기

(말씀 나누기에 참여하지 않았거나 특별히 체험 발표를 하고 싶은 분이 있으면)

❖ 우리는 세례 때 어떠한 다짐을 했습니까?

6. 되새김(성경읽기 II)

☞ 말씀을 더 깊이 이해하고 마음에 새기며, 기도와 관심 그리고 실천을 위해서는 되새김이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다른 누군가가 또다시 큰 소리로 읽습니다.

7. 마침기도

주님, 저희가 성경을 생명의 말씀으로 믿고 기도하며 살고 선포하게 하시어 언제나 성령 안에서 평화와 기쁨을 누리게 하소서. 아멘.

8. 안건토의

9. 기타토의(공지사항)

10. 마침성가(생활성가를 추천합니다)